



보도 일시	<전매체> 11.10. (목) 13:00	-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담당 부서	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안태용 (044-204-75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승호 (044-204-7556)

이영 장관,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창업기업(스타트업) 생태계 협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논의

- 이영 장관, 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 팔리(Khalid Al-Falih) 투자부 장관과 양자면담 ... 양국 창업기업(스타트업) 교류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
- 양자면담에 이어 창업기업(스타트업) 축제 ‘컴업 2022’에 함께 방문해 유망 한국 창업기업(스타트업) 및 벤처 생태계 경험

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(DDP)에서 칼리드 알 팔리(Khalid Al-Falih)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과 함께 대한민국 최대 창업기업(스타트업) 축제인 ‘컴업(COMEUP) 2022’ 현장을 방문했다.

* (일시) : '22.11.10(목) 13:00~14:30 / (장소) : DDP 내 회의실 및 아트홀 1·2

이번 면담은 창업기업(스타트업) 육성에 대한 양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컴업 행사장에서 진행됐다.

면담에서 이영 장관은 칼리드 알 팔리 장관에게 한국의 창업 및 벤처기업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했으며, 이어 양국 창업기업(스타트업)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.

사우디아라비아는 '16년부터 첨단·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‘비전2030’을 수립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와도 '17년부터 ‘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’를 운영하며 협력을 추진해 왔다.

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내 중소기업 분과에서 중소기업정책 교류, 모태기금(펀드) 운영정책 전수 등을 진행해 왔다.

이번 면담에서는 중소기업 분과 운영을 기존의 정책교류 중심에서 실질적 협력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했다.

또한, 한국벤처투자(KVIC), 사우디벤처캐피탈(SVC) 등 양국 모태기금(펀드) 기관 간 공동 벤처기금(펀드) 조성을 통한 혁신 벤처·창업기업(스타트업) 생태계 교류 및 공동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

아울러,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관심이 높은 게임 및 연예오락(엔터테인먼트) 분야 창업기업(스타트업)의 중동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했다.

양자면담 이후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 팔리 장관은 컴업 행사장에 함께 방문해 한국 창업기업(스타트업)의 높은 경쟁력 및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.

이영 장관은 “탈 석유화 이후 성장모형(모델)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 및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(스타트업)을 보유한 한국은 훌륭한 동반자(파트너)가 될 수 있다”며,

“지난 4일 발표한 「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」 일환으로 추진되는 창업기업(스타트업) 해외시장 진출 주요 상대국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